

# PKM GALLERY

## 백현진 «Seoul Syntax»

### Bek Hyunjin: *Seoul Syntax*

February 4 – March 21, 2026 | PKM+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7길 40 | T. 02 734 9467

PKM 갤러리는 오는 2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멀티 아티스트 백현진<sup>b. 1972</sup>의 개인전 «Seoul Syntax»를 별관에서 개최한다. 지난 2021년 전시 «말보다는» 이후 동 갤러리에서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서는 작가가 나고 자란 '서울'을 배경으로 한 장지 페인팅과 드로잉, 비디오 근작들이 소개된다.

미술가이자 음악가, 연기자로 전시장과 공연장, 스크린을 종횡무진하는 백현진은 평생 서울에 적을 두고 활동해 왔다. 그는 수십 년간 변모해 온 서울의 풍경처럼 자신도 변화하고 있음을 긍정하며, 이 도시에서 태어나 살면서 경험하고 느낀 삶의 궤적들을 흔적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Seoul Syntax»의 전시작은 그러한 사유와 실천의 결과물이다.

과거의 백현진이 물감이나 요소를 치기 어렵게 쌓아 올리는 작업을 선보였다면, 금번에 소개되는 근작 페인팅과 드로잉은 비우듯 채워내는 작가 근래의 담담한 조형 언어를 보여준다. 이는 안정과 불안정, 정다움과 낯섦,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동시대 서울의 가변적인 모습을 작가 고유의 어법<sup>syntax</sup>으로 걸러내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상영되는 〈빛 23〉은 서울 근교에서 원테이크로 촬영한 영상 작업이자 뮤직비디오다. 작업은 날씨의 변화와 인간의 희로애락을 낭만적으로 담아내며, 백현진이 체화한 도시의 서사를 시각적 이미지에서 시간의 흐름으로 확장한다.

백현진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대만 등지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일민미술관, 아트선재센터, 상하이 민생현대미술관, 쿤스트할레 빈, 노르웨이 베스트포센 미술관 등 세계 유수 미술기관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7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원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그는 인디밴드 1세대인 '어어부 프로젝트'와 프로젝트팀 '방백'의 멤버이자 솔로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영화 〈북촌방향〉, 〈경주〉, 〈브로커〉와 드라마 〈무빙〉, 〈모범택시〉 등의 개성 있는 배우로서 전방위적인 예술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